

김인하 첼리스트 '살롱 음악회'

'나래코리아 제71회 연주회' 15일 전주서 해설이 있는 클래식 진행

오는 15일 저녁 6시에 전주시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테라스 홀에서 나래코리아 제71회 연주회가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는 이십 년 동안 전주국제영화제 전야 연주회 등 많은 콘서트를 주최해 온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가 서울과 전주의 문화 교류 및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획된 공연이다.

이번 연주회는 이인섭 연출, 예원예술대학교 송미령 교수의 사회로, 국내 정상급 연주자인 김인하 첼리스트가 해설이 있는 클래식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선사하여 클래식계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첼리스트 김인하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 음대를 졸업하고, 야노스 슈타커 파운데이션 실기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재원으로, 러시아,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초청 연주를 하였으며, 선전교향악단 단원 및 선전필하모니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와 세종대, 숙명여대 영재교육원,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김인하 첼리스트는 생상의 '백조', 엘가의 '사랑의 인사', 풀랑의 '사랑의 길', 유키 구라모토의 '로망스', 히사이시 조의 '인생의 회전목마'를 연주한 후 에디트 피아프가 노래한 샹송 '사랑의 찬가'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인하 첼리스트

김인하 첼리스트는 마무리 곡으로 불후의 명곡인 '사랑의 찬가'를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한다.

에디트 피아프에게는 '모로코 폭격기'라고 불리는 유명한 헤비급 권투선수인 '마르셀 세르탕'이라는 연인이 있었다. 에디트의

뉴욕 공연 중 에디트는 마르셀이 너무 보고 싶어, 미국으로 오려고 하였다. 에디트를 보고 싶어 하는 마르셀은 황급히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서 뉴욕으로 향하였지만,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고 만다. 비탄에 빠진 에디트는 절망 속에 자신을 비판하며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게 된다.

에디트는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격한 감정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를 발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후의 명곡인 이 곡 '사랑의 찬가'이다. '사랑의 찬가' 가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하늘의 달을 따고, 보물을 훔치러 가겠어요.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조국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겠어요.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해내겠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느 날 삶이 그대에게서 나를 떼어놓는다 해도, 당신이 죽어서 먼 곳에 가 버린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음악이 우리 사회와 삶에 친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이날 김인하 첼리스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부의 이인호 회장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전북대학교 아트홀에서 MZ세대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전북대서 특강

국악 세계화 ·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그리는 미래 우리 음악 등 강의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희선 집행위원장(현 국민대학교 교수)은 지난 11일 오후 전북대학교 아트홀에서 MZ세대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국악의 세계화, 월드뮤지의 성장과 제도화 과정, 글로벌 축제와 네트워킹,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그리는 미래 우리 음악에 대해 강의했다. 무엇보다 소리축제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아티스트와 관객이 우리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글로벌의 세계로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과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우리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열려있는 소리축제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한양대학교 국악과, 단국대학교 국악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예술문화연구소 등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특강이 개최된다.

한편, 올해 소리축제는 오는 8월 14~18일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소리축제는 8월 여름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김으로써 차별화 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학과 대학생 전용 '태권도원 이용' 상품 출시

태권도진흥재단,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임 · 진로 탐색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대학교 태권도학과' 만을 위한 '태권도원 모꼬지 여행'과 '태권도진흥재단 기관 탐방' 기획 상품 2종을 출시하며 태권도 전공생들의 모임과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최근 태권도원에서 MT나 OT 등 다양한 친목모임을 가진 대학교가 전국 40여 개 교에 달하는 반면, 태권도 학과의 모임은 4개 대학교에 그치고 있다. 이는 평소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태권도원을 찾고 있는 태권도 전공생들이 MT나 OT 등 친목 도모와 여행 등을 위해 태권도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전공생들이 태권도원에서 모임과 휴식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획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성·출시하게 되었다. 먼저, 1박 2일 상품인 '태권도원 모꼬지 여행상품'은 숙박



과 식사, 모노레일 탑승 등을 '무료 또는 50% 할인'한다. 숙박 요금과 4번의 식사, 태권도원 입장료, 모노레일 탑승 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4인실 기준 1인 4만 2천원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 회의나 모임이 필요할 경우 강의실 등의 대관비 역시 50% 할인한다.

또한, 당일형 상품인 '태권도진흥재단 기관

탐방'은 태권도계 유일의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태권도 행정가, 체험·수련 프로그램 담당 지도사범 등 직업선택에 있어 더 넓게 생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소개, 재단 사무처 방문, 체험 프로그램 지도 현장 견학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기관 탐방 가격은 당일 중식 비용인 8천원으로 설정하며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본인의 장래를 설계하는데 도움 받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 모꼬지 여행과 기관 탐방 상품은 청년 태권도인들의 건전한 모임을 지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 주고자 기획하게 되었다"며 "태권도계의 내일을 이끌어갈 태권도 전공생들이 마음의 여유와 심신 피로 해소 등 건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님 등 선배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학과 대학생 기획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마케팅부(063-320-0123)로 하면 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 오페라 공연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서 우리 역사 · 정서로 색 입은 특색있는 공연 진행

베르디 '리골레토'를 우리의 역사와 정서로 색을 입은 특별한 우리말 오페라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가 13일 장수군을 찾는다.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장수군과 ㈜오뮤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리골레토'의 시대적 배경을 조선 말기로 각색하고 등장인물도 폭두, 분이, 번사포, 살수, 살수누이, 박수무당 등으로 바꿔 세도정치로 인해 위장자의 부패가 민연한 시대 상황을 자연스럽게 녹여 계급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말로 번안한 창작 대본을 사용하고, 번사포를 돕던 폭두에게는 '하비의 저주'를 내리는 박수무당 캐릭터를 입혀 각색의 묘미를 더했다. 서양악기와 전통악기를 혼합해 앙상블을



구성하는 한편 앙상블도 등장인물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것도 관객 포인트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오페라는 전석 90%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파크에서 티켓이 판매된다. 공연 당일에는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들이 양질의 오페라를 향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